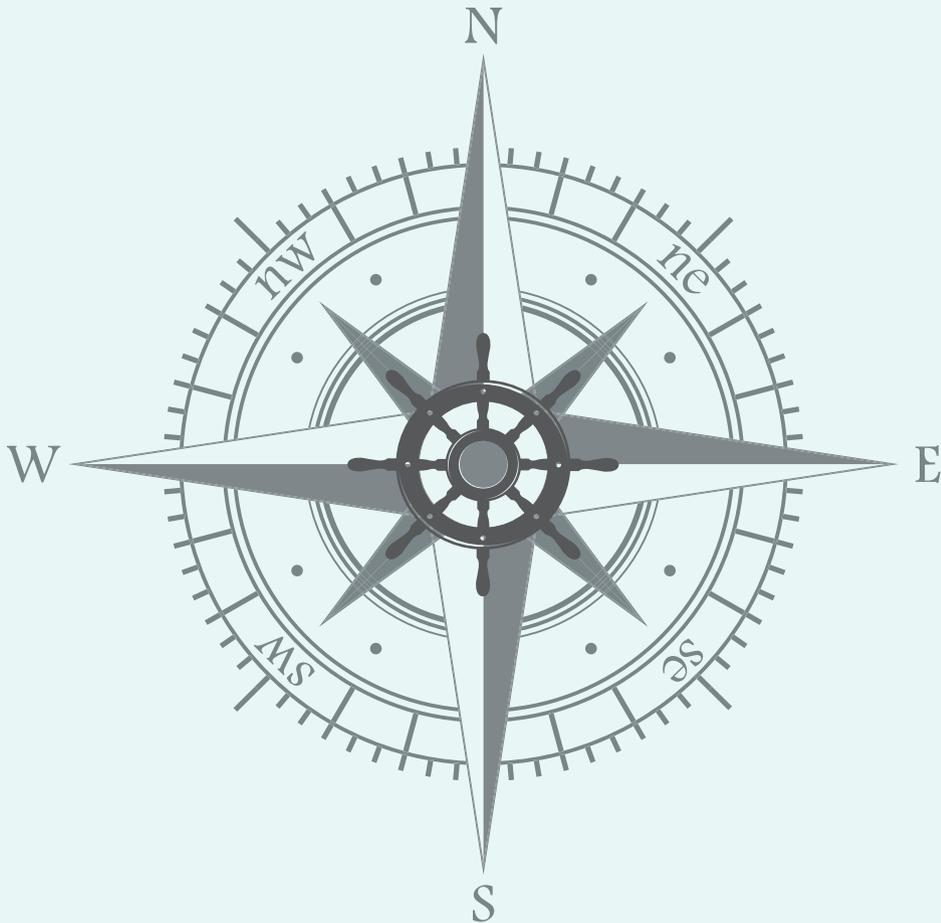


언제나 진실한 인생 항해술, 나침반

글 이영경



대항해시대를 꽃피우고 인류를 주저없이 망망대해로 뛰어들게 했던
주역, 바로 프랑스의 대시인 빅토르 위고가 ‘선박의 영혼’이라 지칭했던
나침반이다. 나침반 바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한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고,
탐험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 빅토르 위고

새 길을 여는 마술의 바늘

‘반지의 제왕’ 톨킨, ‘나니아 연대기’ C.S.루이스와 함께 판타지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필립 풀먼의 ‘황금 나침반’에는 진실만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등장한다. 선택받은 자만이 읽을 수 있는 나침반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인물들은 거대한 전쟁을 벌인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인간질서의 파괴, 영혼의 소중함, 숭고한 희생과 사랑 등이 담긴 소설의 내용처럼 나침반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인간이 나침반을 발명한 것은 선박에 눈을 달아 준 것이자,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를 약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 항해사들은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을 바라보고 바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이 다녀가기를, 구름이 끼면 별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침반이 한 것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었다.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탐험가나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생명줄과 같았다.



한나라 시대 국자 나침반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의 ‘메이드 인 차이나’와는 다르게 중국산이 최고 품질을 지녔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 명성과 함께 중국 3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이 화약, 종이 그리고 나침반이다. 그들은 쇠붙이나 바늘, 숟가락을 자석돌에 댔다가 평행으로 놓을 경우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다네, 결코 속이지 않는 항해술이 있다네, 그것은 갈색 돌로 된 자석(magnet)을 이용하는 것이지 항해자들은 이 나침에 기대어 가야 할 바른 항로를 찾아내지. 나침항법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네.

-12세기 말 프랑스의 시 'La Bible de Guynet de Provins'에 언급된 나침반

사실을 발견했다. 중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자석의 이런 힘을 주로 점을 보는데 사용했다.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당시 유명한 과학자인 심괄이 그의 저서인 <몽계필담(夢溪筆談)>에 나침반의 발전 과정, 유형과 원리에 대해 상세히 남겼는데, 항해와 무역이 발달하면서 나침반이 발전했다고 적혀 있다. 항해와 관련된 실제 사례는 사신의 바닷길 여정을 담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23년 사신단을 이끌고 고려에 다녀간 송나라 서궁이 고려의 실정을 소개하기 위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 날 밤, 바다 가운데 머물 수 없어 오직 별만을 보고 앞으로 가다가, 별조차 보이지 않게 어두워지자 나침반을 써서 남북을 헤아렸다.’ 우리나라에서 나침반이 처음 사용되었을 시기도 이때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의 배들도 송나라를 향해 활발하게 항해한 기록으로 볼 때 당시의 고려에서도 나침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문가들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선단이 동북아 바다를 항해할 때도 나침반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해로 더욱 가까워진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대양 진출은 절정을 이루었고, 지리상의 발견으로 세계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돛과 나침반의 힘을 빌려서 원거리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세계 곳곳에 교역 요충지를 개발했으며, 이를 위해 무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았다.

중국이 발명했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나침반으로 발전시킨 것은 유럽인들이었다. 나침반은 12세기에 아랍을 통해서 서양으로 전해졌

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11세기에 바이킹들이 천연자석을 이용한 방향지시기를 사용했으며, 12세기 말에는 이를 개량해 축에 나침을 올린 축침 형태의 나침반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7세기에는 나침반이 달린 소형 해시계가 발명돼 일종의 휴대용 시계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콜럼버스나 마젤란에 의한 신대륙 발견, 세계일주 항해 등 나침반은 세계 경제무역 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늘로 쏘아올린 나침반, GPS

나침반의 발전 과정은 단순히 나침반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나침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도가 필요했고 해양학과 천문학이 함께 발전했으며, 지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항해와 탐사가 이루어졌다.

진화를 거듭한 결과, 이제 인간은 자신만의 별을 갖게 되었다. 복잡한 도시,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서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 내비게이션에 입력만 하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거리에 위치한 각종 상점들의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위성항법장치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다. 그러나 때로는 편리한 기계보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진짜 별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법, 먼 곳에서 고고하게 빛나는 꿈, 변하지 않는 진리,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로 존재하는 나침반은 여전히 삶을 향진케 하는 상징으로 남아있다. 🌌

